

설 명절 690세대 이웃돕기

일동면 목요회, 여성예비군소대, 주민자치위원회 나서

포천시 일동면(면장 안유진)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관내 기관·단체의 협조와 민간의 후원을 받아 함께 나누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일동면 기관단체장 모임인 목요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단체1가구 자매결연 운동'으로 15가구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

했고 여성예비군소대, 주민자치위원회는 150세대에 떡국용 떡 300kg를 전달했다.

또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불우청소년 15세대에 라면 30박스와 선물세트 15개를 전달했으며 생활개선회는 20세대에 백미 200kg를, 동부교회는 10세대에 연탄 2,500장, 자이언트클럽은 24세대에 연탄 1만장을,

황동모원은 45세대에 백미 500kg 라면 15박스를 각각 지원했다. 한편, 시와 일동면사무소 공무원은 저소득주민 416세대에 62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등 총 690세대에 1천738만5천원 상당의 이웃돕기를 실시했다.

일동면사무소 관계자는 "극심한 불황을 예년보다 풍성한 나눔으로 극복한 사례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 복지자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더불어 사는 사회 건설하는데 행정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일동면 기관단체장 모임인 목요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는 '단체1가구 자매결연 운동'으로 15가구에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고 여성예비군소대, 주민자치위원회는 150세대에 떡국용 떡 300kg를 전달했다.



일동면사무소 공무원들이 저소득주민 416세대에 62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등 총 690세대에 1천738만5천원 상당의 이웃돕기를 실시했다.

포천시 공무원 810명 참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포천시는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간후원금 감소 가능성 등이 높아져 소외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공무원 1가정 방문하기에 이어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합동후원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포천시청 39개 전 부서 810여명의 전 공직자가 참여해 541만1천원을 모금했으며, 정성으로 모인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이번 합동 후원금은 포천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참여하였는데 의미가 있으며, 후원에 참여한 주민생활지원과 김기선 직원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숙제가 있어 작은 정성이 모여 만들어낸 후원금이 어려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되어 훈훈한 설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참여한 소감을 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설 명절 앞두고 생활용품 전달 위로

포천라이온스클럽, 관내 개인신고시설 5곳에 후원

포천라이온스클럽(회장 이병립)은 1월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개인신고시설 5곳을 방문해 생활품을 전달하고 올 명절도 건강하게 지내라고 격려했다.

이날 40여명의 회원들은 개성인삼조합 앞마당에서 모여 2개조로 나눠 봉사활동에 나섰다. 쌀, 기저귀, 간장, 식용유, 라면 등 시설에서 꼭 필요한 생활용품(300만원 상당)을 구입해 전달했다.

개인신고시설인 나눔의 집, 마리아의 집, 해뜨는 집, 임마누엘, 가나안의 집을 찾아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포천라이온스클럽은 매년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시설을 찾아 생활용품을 전달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예산은 회비와 회원 찬조금 등으로 마련했다.

이날 봉사에 나선 이병립 회장은 "라이온스 클럽행사 때마다 축의금 대신 쌀로 받아 모은 것과



포천라이온스클럽은 1월20일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개인신고시설 5곳을 방문해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올 명절도 건강하게 지내라고 격려했다.

회비 및 찬조금으로 생활용품을 구입해 어려운 시설에 전달하고 있다"며 "포천라이온스클럽은 우리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접수된 성금과 물품 전달식이 1월21일 일동면과 이동면, 영북면, 신북면, 포천동, 소흘읍에서 개최됐다.

이날 성금 전달식은 포천신문 조사회원회가 동장군축제와 더불어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전달해 훈훈한 이웃간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일동농협 앞에서 가진 전달식에는 생활이 곤란한 독거노인 정복순 할머니와 생계유지 곤란의 배순자씨, 장애노인 임계훈 할아버지, 생계유지 곤란 김귀숙씨에게 쌀 20kg 2포대와 현금 10만원, 양말 6켤레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동면 도령리 백운계곡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회 동장군축제 현장에서 각 지역마다 어려운 이웃을 추천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이장들이 전달식에 참석한 가운데 성금 및 물품을 전달했다.



일동농협앞에서 전달식, 최로부터 손성우 위원, 구광식 부위원장, 박노성 위원장, 김중현 고문, 김광호 주부영여가지, 김형식 총무, 정복순 할머니, 최두열 포천신문 전무이사



최두열 본지 전무이사가 신북면 신평리에 살고 있는 박영순 할머니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설 명절 전 이웃돕기 운동 전개

현금 260만원, 쌀 20kg 52포대, 양말 156켤레 전달

생계가 막막한 한동근 할아버지, 김동연 할아버지, 최봉우 할아버지, 백만자 할머니, 부인은 병원에 입원하고 본인은 허리 디스크로 일을 못해 생계가 막막한 유영근씨, 생계유지곤란 임연형 할머니, 아들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는 조현목씨, 모자 가정 김영숙씨, 어렵지만 생계 보조 받지 못하는 심명재씨, 손자들하고 살고 있는 김기욱 할아버지, 남편 사고로 병원입원, 생계위험을 받고 있는 조성희 씨, 독거노인 승대봉 할아버지, 생계유지가 어려운 김영갈 할아버지, 생계유지곤란 이옥례 할머니, 장애를 안고 있는 이영진 할아버지, 극빈자 허진욱 할머니 등 16명에게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6켤레를 전달했다.

또 영북면 산정리에 홀로 살고 계시는 김순근 할머니(81세)를 찾아 쌀20kg 2포대, 현금 10만원과 양말 6켤레를 전달하고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격려했다.

영북면 운천리 진점순 할머니는 혼자 생활하고 있으며 허리통증과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있어 쌀 20kg 2포대와 현금 10만원, 양말 5켤레를 전달하고 설 명절을 잘 보내시라고 했다.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박영순 할머니는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11살, 7살, 4살짜리 손주 셋을 기르며 어렵게 살고 있어 쌀



최두열 본지 전무이사가 영북면 산정리에 살고 있는 김순근 할머니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최두열 본지 전무이사가 신북면 신평리에 살고 있는 이영진 할머니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20kg 2포대, 현금 10만원, 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포천시 신음8동에 사시는 정은녀 할머니는 주인없는 집에 살고 있으며 병을 앓고 있어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5켤레를 전달하고 위로했다.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에 살고 있는 이정선 할머니는 중풍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으로 이날 현금 10만원과 쌀 20kg 2포대, 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포천시 소흘읍에 살고 있는 최동화 할머니는 청각장애를 앓고 있으며 의료비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가 절실히 쌀 20kg 2포대와 현금 10만원, 양말 5켤레를 전달했다.



최두열 본지 전무이사가 영북면 운천리에 살고 있는 진점순 할머니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최두열 본지 전무이사가 소흘읍에 살고 있는 최동화 할머니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자현의 포천일기 ③ 검은댕기 매고 하늘을 잘라 파는 사람들

기축년 새해는 만백성 다복하라고 눈이 호박지게 내렸다. 귀향길은 황소걸음이었으나 새로운 각오와 용기로 발도장 짚고 하늘이 이 땅에 내린 따뜻한 응답이다. 새해의 벼두, 좋은 말로 시작하려 하나, 백성의 골짜기 소식이든, 천하가 공평해야 할 나라소식이든 멀쩡한 것이 없다. 참사가 일어나면 어느 물론이든 아픈사람을 조문한다고, 촛불 시위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시시비비가 따따구리보다도 허술하고 까치의 재판보다 뿌리가 없다.

40년이 되어가는, 작가 조세희가 쓰여진 〈나.소.공〉은 아직도 어느 구천을 떠돌고 있는지. 참사의 저변에 대부분 가진 자와 한편이 된 공권력이 있었음을 세상은 곧 잊어버리고 만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이것들 속에 파리를 쫓고 있는 악의 눈알을 뺄을 생각 아든 여든 추후도 없다. 떨어지고 있는 공을 좌로 우로 받아치는 뱀의 혀바닥엔 참가가 일어나면 검은 댕기만 매면 그만이다. 다른 대형 사건이 고맙게도 뉴스지면 채워지고 현실이 지엄한 사람들 가족들만 피눈물을 흘리며 또 하늘을 향해 빈손만 장전할 뿐이다.

그래도 암담한 현실에서 먼 곳을 시선을 확대하면 미국

버락 오바마의 취임이 일월을 의미심장하게 장식하고 있다. 경제 협약 등이 우리에게 플러스로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당선에 이은 취임연설은 21C 케를 품는 통찰로 우울한 세기에 햇살을 든다.

"부유한 사람만을 위해 기능하는 국가는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하지 않다. GDP가 문제가 아니라 번영이 미치는 범위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새 시대에 성장 동력을 향한 언급과 함께 그가 말한 위의 내용은 정경유착을 꼬집는 것이며 제 임자를 찾아가는 분배의 길을 막는 폐쇄회로, 부패를 지적하는 말이다. 전 대통령 부시에게 감사를 전한다는 말로 서두를 시작한 그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일부의 탐욕과 무책임으로 미국은 광범위한 폭력과 증오에 휩싸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취임 후 첫 번째 업무로 이라크 철군을 지시했다. 방위산업 재벌, 전 대통령 조지 부시는 이라크 침공의 원흉이며 그의 이비 부시의 아포칸 침공을 비롯해, 세계 2차대전 때 나찌 독일이 지금과 독가스를 공급했던 조부와 함께, 이들은 같은 가문출신으로 인류가 공분할 악의 화신들이다.

용산참사도 금권과 공권의 야합이다. 부가 축적되어 제 하늘을 찌르다 못해 남의 터를 빼앗

는데 살상을 주지 않는 것, 그 세를 넓히기 위해 타국을 초토화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뉴타운, 개발, 재개발은 그 부가가치를 토크로 누려온 정치와 기업의 공동작품이다. 이들은 공중에 수십 층 건물을 하며 하늘을 잘라 팔기 위해 허술한 서민의 바닥을 빼앗고 있다. 신대륙을 발견한 유럽인들이 최초로 이민을 가서 아메리카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할 때 동서로 하루종일, 남북으로 하루종일 걸어서 금을 갖는 곳을 제 땅으로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목초가 자라는 곳에는 가축을 키워 생계를 이어 갔을 것이요, 기후가 좋은 곳에 사는 신의 잔등을 경작하여 감사의 추수를 했을 것이다. 성경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가르고 나와 하늘의 인도로 받은 후에 민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세상의 모든 터는 내 내 것이니 팔 수도 살 수도 없다. 매매는 아니 되고 단지 빌려줄 수 있을 뿐이다.'

서민은 하늘이 내린 그 땅의 뿌리다. 뿌리가 없는 터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사태가 헤일처럼 닥칠 터이니 이는 신의 심판이다.

김자현 소설가

언제나 바른뉴스! 포천신문

www.ipcs21.com

포천신문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및 시사 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천시를 중심으로 인접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의 시·군정을 해설·소개하고, 시·군내의 각종 행사와 유명 인사를 소개하며 주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수록,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을 신청해 주신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월 20일 ~ 1월 29일까지)

- 포천신문 임직원 올림 -

정기구독 및 평생구독 : 농협(585-02-172934) 예금주 : (주)포천신문사

www.ipcs21.com

정기 발행 현황

- 2009.01.20 포천신문 제437호 발행
- 2009.01.30 포천신문 제438호 발행
- 2009.02.10 포천신문 제439호 발행예정

취재기자 모집 | 소신있고 성실한 취재기자를 모집합니다. ☎031-542-1507